

킹데이 3주행일기 <D>



정명자

중앙승가대 교육과교육원 교수

나 또한 스님이 추천하는 책과 법문 테이프를 통해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웃집에 사는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인간적인 부처님을 느끼며 그 자비로움에 눈물 흘렸고, 그 때 만났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은 살아갈 데 큰 힘이 되었다.

한 가지 내게 신기했던 경험은 선원에서 만나는 법우님들

되었다. 명상을 통한 생활 속의 수행은 언제나 나를 평화롭게 한다.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깨어있음(sati)으로 경험되는 평화로움으로의 변화, 그것이 생활 속에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살아가는 힘이다.

고통의 소멸이 수행의 목적이라면 나는 생활 속에서 늘 깨어있고자 한다. 끝 하나를 통해 우주 만물을 볼 수 있고 꽃과 나무와 새, 하늘, 구름, 비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일 때 우리의 마음 공부는 되어 가는 거라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시간이 되는대로 명상을 한다. 그 짧은 시간동안의 깨어있음, 그 평화로움을 알기에... 걷고 있으면 걷고 있는 줄 알고 걷고, 화내고 있으면 화내고 있는 자신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항상(恒常)하지 않음을

스님이 추천한 책 읽고 부처님 느껴

명상통한 생활속 수행으로 평화언어

의 모습이다.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한결같이 차분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했다. 스님 말씀을 들으며 아나파나사미(出入息念) 명상 수행을 했다. 무지한 중생이라고 핀잔도 듣고, 모습이 좋아졌다고 칭찬도 듣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알게 된다.

이 작은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고 있을 때, 깨달음의 길, 부처님께서 걸었던 옛길에 비로소 함께함을 느낀다.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귀의처로 의지했잖아. 마찬가지로 그대 또한 그대 자신을 위한 선(dipa)을 만들어야 할 걸세. 그게 곧 그대의 귀의처이니 다른 어디에도 기대서는 안되네. 법(dhamma)을 그대의 귀의처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야 한다."

지혜는 자신을 강하게 하고 지혜로 단련되어진 자신만이 나의 의지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려 한다.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고, 담마에 대한 사유를 하고 수행을 통한 경험적인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동안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생을 위해...

토요일 밤의 참선 열기 '삶의 힘'



6월 23일부터 1주일간 철야참선을 진행한 대전 학림사 오동시민선원의 용맹정진 모습.

6월 23일 대전 계룡산 장군봉 아래 위치한 학림사(조실 대원스님) 오동시민선원. 40여 불자들이 '오직 모를뿐'인 마음으로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화두참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10년 이상의 구참 선객들은 태산처럼 미동도 없지만, 억지로 화두를 쟁기려는 선객들은 아무래도 힘이 든다. 저런 다리를 바꾸기도 하고, 포켓엔 손도 바꾸어 보고, 몸도 흔들어 보고, 어깨도 추슬러 보고... 이날부터 7일간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되는 철야참선 시간에 재가 선객들은 수마와 싸우며 용맹정진했다.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학림사와 같은 시민선원이나 재가 수행단체에서 매주 또는 매달 철

곳으로 유명하다. 화계사는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철야 3천배 정진도 한다. 보림선원 보림회는 30년째 주말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여름 및 겨울 휴가철에는 1주일 용맹정진까지 하고 있다. 부산 해운정사는 10여년째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주지 스님의 지도하에 법문 및 참선, 108배 등을 하고 있다. 97년 개원한 학림사 오동시민선원은 매주 토요일 조실 대원스님의 증도가 법문에 이어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1주일간 특별정진기간을 정해 철야정진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부산 삼광사와 서울 관문사는 기도 기간 중 매달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 30분까지 철야정진을 하고 있으며, 참여 불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에 달한다.

매달 한번씩 정기 철야정진을 하는 사람은 더욱 많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철야정진기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선정회 주관으로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양평 법왕정사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333배 철야정진기도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기도처로 유명한 여수 항일암과 남해 보리암에서는 철야정진기도를 원하는 불자들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남원 실상사 화엄회와 서울 능인선원은 3달에 한번, 108배 및 300배 철야기도정진을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5일제 실시후 철야정진 하는곳 늘어

집중적인 수행 바쁜 직장인에 인기

야정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토요일 밤의 참선열기'는 바쁜 일과로 인해 자주 수행하기 힘든 불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불자들은 철야 참선이나 108배, 300배, 108참회정진 등을 통해 1주일간 묵한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한 주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매주 철야참선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은 서울 화계사와 보림선원, 부산 해운정사, 대전 학림사 등이 대표적이다. 화계사 선우회는 26년째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 주말 철야참선을 하는

법기회 강정진 지도법사 수행법 논란

"당나라 육조 혜능 이후에 경성했다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 사들은 모두 착각도인입니다. '이 뱀고' '부모가 낳기 전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父母未生前)' 등도 모조리 죽은 화두입니다."

최근 <영원한 대자유인>(공리) 개정판을 낸 법기회 강정진(72) 지도법사의 수행법과 관련,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법기회 수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행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혜능이후 선사들은 모두 착각도인'이라고 한 발언.

이와 관련 '다음 카페'(cafe.daum.net/buddhajukbi)에서 '장군죽비'란 별칭을 사용하는 한 스님은 법기회 수행법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육조께서 인간 전법제자들도 착각도인이라 말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그는 누구의 인가를 받고 법을 이었는가? 인간전법한 분조차 착각도인일터. 만일 인간전법을 하지 못했다면 이아말로 천연외도가 아닌가?" "어째서 '이 뱀고'나 '부모 미생전' 화두가 죽은 화두란 말인가? 세월이 아무리 흘러 겁을 지날지라도 위의 화두는 분참 화두로 이것을 깨달아 보지 않고는 불법을 깨달았다 할 수가 없는 법, 그가 무슨 근거로 '죽은 화두라' 하며, 그는 이 화두를 참으로 투득했다는 말인가?"

법기회 홈페이지(www.bubkisa.or.kr)와 붓다뉴스(buddhanews.com), 동아닷컴(www.dongailbo.co.kr) 등 인터넷

'혜능이후 선사 모두 착각도인' 발언

붓다뉴스, 법기회 등에 비판글 쏟아져

에도 비판의 글들이 쏟아졌다.

"어떻게 깨우쳐했다는 분이 <영원한 대자유인>은 금강경을 읽기 전에 쓴 책이라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스스럼없이 할 수 있나? 깨우쳐했다는 분이 금강경을 읽고 또 무엇을 깨우쳐했다는 것인지요.(법기회 '참학인') '거사님이 과거 선 사들이 모두가 까자인 이유는 결인법, 호흡법, 허불이법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호흡법은 모르겠지만 결인법과 허불이법법은 선법에서 모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아닷컴 '남자') '강정진 거사가(특이본 단경(德異本 壇經))에서 지난 800년간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극히 짧은 몇 구절에 불과합니다. 수 많은 선어록 중에 서 딱 한 권의 선어록의 짧은 몇 구절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지난 800년간 진정된 선지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비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붓다뉴스 '무명인')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았다. 법기회 수행자들은 용어상의 오타나 불일치, 전체가 아닌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일 수



6월 23일부터 1주일간 철야참선을 진행한 대전 학림사 오동시민선원의 용맹정진 모습.

있으며 강정진 법사를 옹호했다.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상황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의 정리가 뒷받침 되어 있고, 자신만의 schema(체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논의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후에야 가능하다."(법기회 '박형건') 찬반 의견과 함께 중도적인 시각을 가진 수행자들도 있었다. "강 거사님의 방법도 맞지만, 자신의 방법을 전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는 이룰 것은 안된다 하는 것은 향후 개선 방향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법기회 '초심자')

9년전 <영원한 대자유인> 초판 간행 때는 비교적 잠잠하던 '법기회 수행법' 논쟁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KBS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선객> 방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행자들은 법기회 수행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정법을 드러냄으로써 불자들의 혼란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국민 네티즌 시대" 이제 사업과 포교의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리는 매체 =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썬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만 하시면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컴퓨터 관리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따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홍보용 팸플릿 만드는 비용 정도면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곁에 불교를 알고 인터넷을 아는 (썬아이코스솔루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 이표는 부가세 별도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본형 홈페이지 | 기획형 홈페이지 | 기업형 홈페이지 |
|------|-----------|------------|------------|
| 일반형 | 최저 60만원 ~ | 최저 120만원 ~ | 최저 200만원 ~ |
| 플러스형 | 최저 80만원 ~ | 최저 160만원 ~ | 최저 300만원 ~ |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 이표는 최저 사양 및 단가를 표시했습니다

| 구분 | 리눅스 호스팅 | NT 호스팅 | 구분 | 리눅스 호스팅 | NT 호스팅 |
|-------|---------|--------|--------|------------------------------------|--------|
| 하드공간 | 100M | 100M | 초기설치비 | 무료 | 무료 |
| E메일 수 | 5개 | 5개 | 월 이용료 | 5500원 | 11000원 |
| DB 용량 | 20M 무료 | 20M 무료 | 할인을 적용 | 6개월 신청 시 1개월분 할인 / 1년 신청 시 2개월분 할인 | |

■ (썬아이코스솔루션에서는 사업 홍보물 기획에 별도의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불자 사업가를 위해 사업 홍보물 또는 업체 브로셔를 기획회사에서는 업무도 못 낼 가격에 국내 최고 기획전문가가 직접 기획해 드리고 있습니다.

● 조건 : 기본 10페이지 이상 / 페이지 당 가격 50,000원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인 (썬아이코스솔루션에 연락하십시오.

전화 : 031)832-0992 / fax : 031)836-0993 / 홈페이지 : www.eyecos.com

(썬아이코스솔루션 (HP : 016-347-8881 e-mail : jhnpark@eyecos.com)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철보) 내호함 (도자기)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철보)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봉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